

#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떨리는 도발망동을 부린 박근혜역적패당의 소굴부터 초토화해버리고 남반부를 해방할것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대집중화력타격연습에는 전선대련합부대 최정예포병부대들이 장미한 주체포를 비롯한 백수십문에 달하는 각종 구경의 장거리포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화력지휘국장 박정진중장으로부터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장거리포병부대들을 사열하시였다.

연습에 앞서 인민무력부장 박영식 대장이 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는 이제 곧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개시하게 된다고 하면서 오늘의 포병화력타격전은 위대한 선군조선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목숨으로 사수하기 위한 수평사수전, 수평보위전이며 박근혜역적에게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겨줄 백두산총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정의의 보복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강도 미제와 박근혜역도는 침략적인 《키 리콜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다못해

지난 3월 21일 수많은 전투기들과 특수작전 병력을 동원하여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의 칩무를 파괴하기 위한 천하무도한 《정밀

타격훈련》까지 감행하였다. 이것은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일간망둥이들, 이미 인간이기를 그만둔

미주먹은 개우리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놈들의 악랄한 도발행동에 선제적인 서울해방작전으로 단호히 대응할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천만군민의 운명이신 위대한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워보려는 미천개들에게는 더이상의 경고가 필요없다.

오직 무자비하고 한계가 없는 복수의 불비박으로 정의와 평화의 원수, 추악한 역적무리들을 제가루도 남지 않게 날려보낼 때만이 세계적인 속망인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력자강의 힘으로 마면해놓은 세계가 아직 다 알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최강의 타격수단들이 있으며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에서 침략의 본거지들을 생존불가능하게 들부시고 피멸시킬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

만일 놈들이 마지막몸부림으로 도전해 나온다면 우리의 모든 포병무력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에 의하여 서울은 제가루만 날리는 죽음의 흑대밭으로 변할것이다.

3 면 으 로 계속

